

政治學研究에 있어서의 概念, 定義 및 概念形成

姜 信 泽
(副 教 授)

<目次>	
I. 科學活動의 內容	1. 概念區分의 基準
1. 序 言	2. 對象과 屬性
2. 「接近方法」이라는 말의 뜻	3. 定義의 構造에 따른 屬性概念의 區分
3. 原 型	4. 對象概念의 問題
4. 科學活動의 內容과 目標	5. 構成法이나 測定의 性格에 따른 概念區分
II. 概念 및 用語의 定義	6. 定義表와 分析的 概念表
1. 概念 및 用語의 定義	7. 分類體系와 類型
2. 概念導入의 論理	IV. 分析水準과 概念의 問題
3. 概念評價의 基準	
III. 概念의 種類	

I. 科學活動의 內容

1. 序 言

어떠한 基準으로 政治現象에 관하여 道德的 判斷(moral judgment), 事實的 判斷(factual judgment), 그리고 論理的 判斷(logical judgment)을 내릴 것인가 하는 問題에 관하여 政治學者들은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¹⁾ 政治現象에 있어서의 優良의秩序, 善과 正義의秩序, 그리고 合理의秩序를 가려내고자 하는 것이 道德的 判斷의 문제이고 現象으로서의 世界에 있어서 極端間의 “있는 그대로”의 體系의 관계를 確認하여 보려는 것이 事實的 判斷의 문제이며, 그와 같은 判斷들의 叙述과 表現形式上의 論議의 연结관계나妥當性을 다루는 것이 論理的 判斷의 문제이다.

(1) John C. Kemeny, "A Philosopher Looks at Political Scien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 (1960), p. 292.

道德的 判斷에 관한 문제는 思想史나 政治哲學의 侧面에서 傳統있는 研究가 이루어져 왔고 이 分野는 우리나라의 政治學研究에 있어서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政治現象에 좀 더 「科學的」으로 연구하여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事實的 判斷과 理論的 判斷의 基準에 관하여 새삼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다.

政治現象에 관한 事實的 判斷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理論的 定向이 있고 실제로 採用, 發展되고 있는 分析方式(modes of analysis)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이러한 努力은 理論을 發展시켜서, 좀 더 體系的으로 政治現象을 理解 說明하고 豫測해 보려는 努力의 一環인 것이다.

그런데 政治學에 있어서는 어떤支配的인 理論이라고 하여 받아드려진 것이 없고, 現在 理論이라니 提示되고 있는 것들이 과연 「理論」으로서의 要件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에 관해서도 論議가 많다. 이러한 論議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理論的 判斷의 基準에는 科學哲學(Philosophy of Science)의 見解가 있다. 그리하여 科學哲學에서 發展시켜온 몇 가지의 妥當化 또는 正當化의 論理(logics of validation or justification)에 관한 문제도 政治學者들의 관심대상이 되게 된 것이다.

本稿는 亂으로 現代政治理論을 좀 더 구체적으로 紹介 檢討하여 보기위한 準備作業의 一部로서 科學哲學에서 提示되고 있는 概念形成의 論理가 무엇인가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現象의 經驗的 研究에 있어서는 事實觀察, 概念形成, 理論構成, 그리고 說明과 豫測이 同時에 進行되는 것이지 따로 따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각각을 따로 떼어 論하기도 어렵다. 이 點을 念頭에 두면서 論議展開의 便宜上, 우리는 여기서 概念의 문제에 焦點을 두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概念의 經驗的 理論의 重要性을 평가하거나, 概念의 形成方法等을 理解하기 위하여는, 우리가 想定하는 科學活動의 內容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本稿의 序頭部分에서는 이 問題에 관해 略述하고 나서 概念이라는 말의 뜻, 定義의 方式, 概念導入의 論理, 案念評價의 基準 및 概念의 種類等을 차례로 살펴 나가려 한다.

2. 「接近方法」이라는 말의 뜻

어떠한 學問分野에 있어서나 여러가지 見解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政治現象의 研究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見解가 提示되어 왔다. 이러한 見解를 대개 「接近方法」(approach)이라는 말로 表現하는데 接近方法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研究에 관련 있는 問題와 資料의 選定基準이라고 할 수 있다.⁽²⁾

政治現象 전체에 관하여 어떤 見解가 있을 수 있고 또 政治現象의 各側面 또는 部分에 관하여도 見解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支配的인 見解가 없기 때문에 數많은 接近方法이 생겨날 수 있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그리하여 政治學研究에 있어서는 다른 學問分野, 例

(2) Vernon van Dyke, *Political Science: A Philosophical Analysi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p. 34 및 pp. 113-114.

現대 心理學, 社會學, 法學等의 研究見解를 援用한 接近方法도 있고, 政治現象中 가장 特徵이 된다고 想각될만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接近方法도 있다.

이러한これら가 接近方法들은 서로 補完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競爭관계에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傾向이 다른 接近方法이 連結 없이 共存한다는 것은 그만큼 理論體系가 獨立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3. 原型

어떤 見解나 接近方法이 어느 學問分野에서支配的인 位置를 차지하여 그 分野의 現象을 바라보는 世界觀을 마련하여 주어서 問題選定과 解答의 方向과 一貫性을 提示하여주는 경우 이와 같은 見解를 「原型」(paradigm)이라고 부를 수 있다.⁽³⁾

여기서 原型이라고 부르려는 어떤 學問分野의支配的인 見解의 性格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뜻이 부여되고 있다. 原型이란 一定한 分野에서 사용되는 見解 또는 接近方法上의 어느 정도 合意된 内容이며, 그러한 見解에 따라 問題를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⁴⁾ 때로는 原型을 넓은 의미의 模型(model)이라는 말과 同義語로 쓰기도 한다. 原型이 어떤 合意된 見解라는 말은 理論의 評價基準으로서 중요한, 간결성과 一般性을 評價할 수 있는 어떤 一定한 準則을 導出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一定分野에 있어서의 原型은 그 生成的側面에서 본다면, 從前의 여러 見解를 一貫性있게 統一하여 두는 一定한 見解가 優位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成立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대개 그 分野에 있어서의 指導的인 學者의 業績이 그 基礎가 되는 수가 많은데 이러한 業績은 後世學者들이 研究하는 問題와 方法중 어느 것이 正統性이 있는 것인가를 규정하여 준다. 그렇게 되는 理由는 두개의 관련된 特徵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첫째는 그러한 業績이 前例가 없을만히 뛰어난 것이어서, 다른 競爭的科學活動으로부터 追從者를 끌어오기에充分하다는 것이다. 同時に 그것은 未解決의 問題를 안고 있어서 새로 形成되는 學者들로 하여금 풀어야 될 各種의 問題를 남겨 두고 있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業績은 그 分野에 있어서의 學問的 投身의 焦點이 되고 그로부터 各種의 概念과 法則과 理論이 導出되기 때문에 이들 後者에 先行하는 것이다.⁽⁶⁾

좀 더 限된 의미에서 「原型」을 理解하려는 學者들은 原型을 模範的인 完全한 理論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어떤 理論의 表現에 있어서 重要한 변수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現在 對象이 되고 있는 것以外에는 다른 時間 다른 곳에서 發生하는 다른 어떤

(3) Thomas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에서 科學活動에 있어서의 Paradigm의 優先性을 強調하고 있다.

(4) Jerald Hage, *Techniques and Problems of Theory Construction in Sociolog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2), p. 189.

(5) Kuhn, *op. cit.*, p. 10.

(6) *Ibid.*, p. 11.

한 變數도 理論이 對象으로 삼고 있는 屬性間의 相互作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最惡의 경우 이와같은 外部의 영향을 理論上의 計算이나豫測에 있어서 어떻게 處理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경우, 그 理論은 完全한 理論이다. 다시 말하면 그 理論體系는 閉鎖(Closed)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理論의 法則은 過程法則(process law)을 그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⁷⁾ 우리가 萬一 過程法則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一定時點에 있어서의 어느 特定한 變數의 値을 다른 時點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變數의 値으로 부터 計算해 낼 수 있고, 따라서豫測과 說明도 演繹的으로 行할 수 있고, 個別의 事件(individual events)의 發生을豫測하고 說明할 수 있기 하여 준다고 보는 것이다⁽⁸⁾.

우리는 이와 같이 完全한 理論만을 原型이라고 규정하는 입장보다는 좀더 넓게 해석하여 이런 理論가지를 포함하는 概念과 方法을 導出케 하여주는 整理된 憬解를 原型이라고 부르는 입장을 따르기로 한다.

科學活動에 있어서 原型이 遂行하는 機能은 무엇인가? 學者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異見은 原型의 成立과 더불어 사라지고 마는데, 그렇게 되는 過程은 그나름의 特徵이 있기 때문이다. 即一旦 어떤 見解가 支配的인 것으로 받아드려지면, 그 後의 教科書는 그 見解의 集約을 中心으로 하여 쓰이게 되고 學生들이나 後進學者들은 이러한 教科書와 그에 관련된 研究節次를 依워 따르게 되므로 그 見解가 一定期間 存續하면서 異見이나 異說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見解를 中心으로 學科가 태어나기도 하고 專門領域이 成立되기도 하여 그 分野에 있어서는 대개 合意된 見解下에서 研究가 進行되게 된다. 이러한 原型이 成立된 分野의 科學活動을 正常科學(normal science)이라고 부르는데 社會科學은 아직 原型으로 받아드려진 것이 없다는 것이 學者들의 평가이기도 하다.⁽⁹⁾

社會科學에 있어서 아직 받아드려진 原型이 없다면 그러한 學問活動은 科學的 研究라는 입장에서 봄 때 非體系的이고 때로는 資料 자체가 重要해서라기 보다는, 資料를 쉽게 求할 수 있다는 便宜 또는 現實問題의 要請때문에 研究가 行하여질 可能性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社會科學分野에서도 「理論」이라고 불리우는 여러가지의 定向 또는 分析方式이 提出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앞으로 어떤 一定한 世界觀 即「原型」속에서 整理될 때 어떠한 內容이 그것이 될 것인가를 그려보는 것도 無意味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그래서 다음에는 科學活動의 內容과 目標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4. 科學活動의 內容과 目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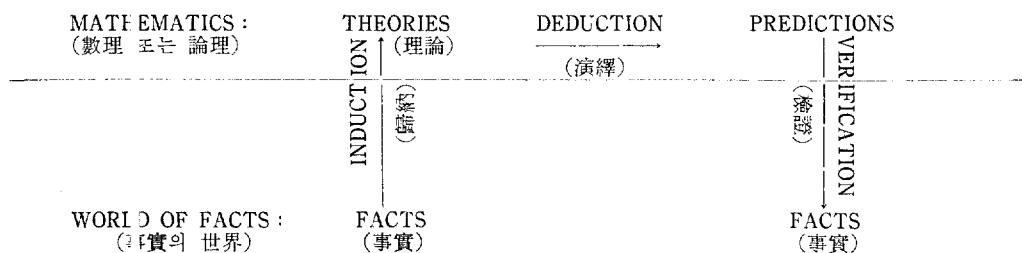
(7) Gusta Bergman, *Philosophy of Scien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57), pp. 91-111.

(8) May Brodbeck, "Explanation, Prediction, and 'Imperfect' Knowledge," in May Brodbeck, 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Social Sciences* (New York: McMillan, 1968), p. 372 參照: 拙稿, 「科學의 說明과豫測」行政論叢(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1卷 1號 (1973), p. 131.

(9) Kuhn, *op. cit.*, 12-22.

흔히 말하기를 科學은 事實에서 出發하여 事實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이 과정을 연결하는 데 쓰이는 理論的 構造가 어떠한 것인 간에 科學은 事實에서 시작하여 事實로 끝나는 것이다. 科學者는 觀察者이다. 그리하여 자기가 본 것과 앞으로 보게 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完全한 一般性을 부여할 수 있는 描寫를 試圖하며 자기의 理論을 土台로豫測하고 그것을 事實과 対照해 보는 것이다.⁽¹⁰⁾

科學者가 事實에서 出發하여 事實로 돌아가는 過程에는 歸納(induction), 演繹(deduction) 및 檢證(verification)의 3段階가 있으며 이러한 3段階는 科學者가 가지고 있는 두개의 世界를 연결시켜준다. 科學者의 世界에는 事實의 世界(world of facts)와 數學 또는 論理의 世界(mathematics)가 있다.⁽¹¹⁾ 이러한 關係는 다음 그림과 같이 表現할 수 있는데⁽¹²⁾ 이러한 關係의 연결주차가 妥當한 것인지를 判斷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前述한 바 있는 論理的 判斷基準의 둘째이다.



事實과 論理의 世界를 엄격히 区別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論議의 對象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科學者의 世界를 둘로 나누어 보았을 때 事實의 世界는 科學者에게 잘 알려진 日常의 世界인데, 그것은 물론 조심스럽고도 正確한 觀察에 土台를 두고 있다. 論理 또는 數理의 世界는 觀察과 數式의 世界로서 理論家의 世界이기도 하다. 事實이란 우리가 알 수 있는 具體的인 경우에 反하여 理論이란 普遍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全體로서 實在인가 아닌가는 알 수 없는 것이다.⁽¹³⁾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歸納이란, 科學者가 觀察된 事實들을 說明하기 위하여 理論을 構成하는 過程을 말하며 演繹이란 理論의 法則으로부터 特定한豫測를 導出해 내는 過程이다. 우리는 理論의 自體를 檢證할 수 없으며 오직 理論의 論理的 結果만을 檢證하여 確認할 수 있을 뿐이다. 檢證이란豫測된 事實이 정밀로 그런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過程이다. 우리는 特定한 事實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一般理論 그 自體를 檢證할 수는 없고 理論의 具體的인 結果만을 檢證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또 事實을 萬集하게 되는 것이다.⁽¹⁴⁾

(10) John C. Kemeny, *A Philosopher Looks at Science* (New York: D. Van Nostrand Co., 1959), p. 85.

(11) *Ibid.*, pp. 86-87.

(12) *Ibid.*, p. 86.

(13) *Ibid.*, pp. 89-91.

(14) *Ibid.*, pp. 93-99.

이와 같이 科學者들이 歸納, 演繹 및 檢證의 各段階를 통하여 理論과 事實을 연결시키는 過程에 有어서 行하고 있는 活動의 性格은 어떠한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正常科學에 있어서는 原型이 提示하는 世界觀에 一致된다고 생각되는 理論과 事實을 연결시키는 活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具體的인 內容에 관해서, 事實에 焦點을 두는 경우와 理論面에 力點을 두는 경우로 나누어 紹介하기로 한다.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이 區分은 便宜上의 것이지 엄격하게 分離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¹⁵⁾

(1) 事實面의 焦點

여기서도 關聯된 세 가지 側面을 볼 수 있다.

첫째 原型에 비추어 볼 때 事物의 性格을 가장 잘 나타내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事實들을 觀察하고 實驗하는 것이다. 그러한 事物의 性格을 아는 것은 問題解決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正確하게 여러 狀況에서 確認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두째 原型이 提示하는 理論으로 부터 導出된豫測과 直接 對比시켜 보기 위하여 事實을 蒐集하고 事實確認을 주로 하는 活動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드물고 그렇게 쉽게 事實과 對比할 수 있는 水準의 理論이란 크게 意義도 없는데 그 理由는 大部分의 發達된 理論의 경우 그것을 直接 現象과 對比시키기는 어렵고 대개는 理論이 추상적으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간의 演繹過程과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세째 原型理論을 좀 더 發展시켜 나가기 위하여 行하는 經驗的 研究로서의 實驗과 事實觀察이다. 이 作業은 原型理論이 從前에 지니고 있던 모호한 點을 해결하고 從前에 풀지 못했던 問題들의 解決을 可能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活動에 포함되는 것들은 常數(constants)의 決定, 數量的 法則의 發見 및 探索(exploration)等이다.

(2) 理論의 側面에의 焦點

實驗과 實察을 為主로 하는 事實置重의 活動에 관하여 區分한 것과 類似하게 理論的 側面에 焦點을 두는 活動들을 區分하여 볼 수 있다.

첫째 理論의 精密度를 높이기 위한 活動이 있을 수 있다.

두째 意義가 있다고 믿어지는 事實的情報를 豫測해 내기 위하여 原型이 提示한 既存理論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應用技術分野에 屬하는 문제들이다. 이와같은 作業이 필 요한 理由는 理論과 事實間의 接觸點을 찾아 내는데 있어서 當面하게 되는 어려운 問題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째 原型 그 自體를 發展시키려는 活動이다. 소위 발달된 學問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科學活動이 이적 質的인 측면을 주로 다루는 分野 또는 時期에 있어서는 이러한 活動이 아주重要な 것이다. 이때의 問題는 原型의 見解를 再構成함으로써 解明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

(15) Kuhn, *op. cit.*, pp. 23-34 參照.

련의미에서 原型發展에 관한 問題와 活動은 理論的인 同時に 實驗的인 것이 된다.

위에서는 實驗面에 力點을 둔 活動이냐 또는 理論面에 力點을 둔 活動이냐로 각각 나누어 세가지 活動을 보았는데, 그 각각은 같은 侧面에 대한 力點의 差異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別事實의 正確한 確認과 理論의 精密度를 높이려는 活動은 原型이 제시하는 重要事實의 決定(determination of significant fact)이라 할 수 있고, 事實을 理論에 맞추어 보거나 理論을 事實豫測에 쓰는 것은 理論과 事實間의 對應關係決定(matching of facts with theory)이다. 그리고 實驗을 주로하진 理論自體를 관념적으로 조작하진 이런 活動은 理論의 具體化(articulation of theory)를 위한 것이다. 결국 이와같은 세가지 侧面은 經驗的 및 理論的 科學活動의 全領域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科學活動의 目標는 現象을 體系的으로 理解하고 說明하며 豫測하려는데 있는 것이다.⁽¹⁶⁾

科學活動이 理論構成이라는 面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첫째는 무엇이 問題인가를 確認하고, 두째 問題의 解決 즉 說明과 豫測上의 不完全한 部分 또는 未解決部分을 채아낸다. 세째 새로운 變數를 導入해 之으로써 어느곳에 연결상의 결함이 있는가 알아본다. 네째 修正된 原型을 體系的으로 導入하고, 다섯째 이러한 原型의 見解를 從前에 다루어 보지 않은 領域으로 延長시켜 보는 것이다.

II. 概念 및 用語의 定義

1. 概念 및 用語의 定義

(1) 概念 및 用語(concepts and terms)

經驗科學(empirical science)의 目標는 經驗世界에 있어서의 特定現象을 觀察 描寫하고 그 리한 現象이 體系的으로 理解, 說明 豫測하게 할 수 있는 一般原理나 理論을樹立하는 것이다. 이러한 活動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現象의 特定事實과 事實들의 結合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낳게 된다. 즉 現象의 知覺(perception)을 통하여, 어떤 觀念이나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概念(concept)이라는 것이다.

科學活動은 單獨的 主觀的인 活動이 아니다. 一團의 科學者集團에 의하여 相互意思傳達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과 남의 생각을 交換, 傳達, 受容 또는 拒否하는 것이므로 각자 가지고 있는 각각은 어떤 形式으로든지 表現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概念과 科學者가 사용하는 術語(以下에서는 用語라고 부르겠다)는 서로 區別될 수가 있다. 即「用語」란 概念에 對應하는 言語的 表現이라고 할 수 있다. 科學의 叙述은 대개 特殊한 用語로 構成 表現되는

(16) 摘稿 前揭「科學的 說明과 豫測」參照.

데, 그 意味가 明示的으로 具體化되어야만, 그 叙述을 檢證해 볼 수도 있고, 說明과 豫測에 쓰일 수 있게 된다.⁽¹⁷⁾

學問活動에 있어서의 概念이라는 말 自體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道德的 判斷, 論理的 判斷 및 事實的 判斷에 相應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이 區分하여 볼 수도 있다.⁽¹⁸⁾

첫째는 價值概念(value concepts)들로서 이것은 어떤 對象(object)과 그 對象에 對한 사람들의 反應 即 道德的 判斷를 指稱하는 것이다. 이러한 概念의 意味는 狀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科學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 理想的 言語라고 할 수 없다.

두째는 論理的 概念(logical concepts)들이다. 이러한 論理的 用語와 體系는 經驗的 理論에 있어서 現象의 중요 特徵들을 연결하는 重要한 役割을 수행하는데 특히 說明과 豫測에 있어서 公式的 또는 非公式的 演繹을 可能케 하여준다.

세째는 經驗的 概念(empirical concepts)들이다. 科學活動에 있어서의 事實과의 연결은 現實의 어느 側面을 지칭하거나 經驗的 概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뒤에 다시 言及하겠지만 經驗的 定義는 一聯의 연결된 叙述(言明)들로서 이들은 現實을 직접 지적할 수 있는 단계까지 行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理論이 사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概念들중에서 우리의 考察對象이 되는 것은 主로 論理的 概念과 經驗的 概念들이다.

科學의 研究의 初期에는 現象의 描寫와 一般化(generalization)를 主로 日常的인 用語로 행하나 科學의 成長과 더불어 더 專門化되고 좀 더 抽象的인 概念을 발전시키고 그에 相應하는 技術的 用語(術語, technical terms)가 발달한다.⁽¹⁹⁾ 그렇다면 어떠한 理由와 方法으로 이러한 特別한 概念이 導入되며 그들이 科學理論에서 수행하는 機能은 무엇인가? 本節에서 는 이 問題를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以下에서는 「概念」과 「用語」라는 말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 여기에서는 論理的 概念과 經驗的 概念만을 우리의 考察對象으로 삼겠는데, 理論이란 概念과 概念의 연결이니 그러한 叙述은 用語를 연결시키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概念이나 用語는 理論의 單位 units of theory)가 된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本章에 따라서는 얼마간의 用例의 差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部分의 논의에서 우

(17) Carl G. Hempel,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p. 85.

(18) Henr. Teune, "Toward a Meta-language for the Analysis of Concepts in the Social Sciences," (mimeographed paper) Prepared for the Committee on Conceptual and Terminological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Working Paper 2, October, 1971), pp. 2-4 參照

(18) Carl G. Hempel, *Fundamentals of Concept Formation in Empirical Scienc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Unified Science, Vol. II, No. 7.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52), p. 1.

리는 概念, 用語, 理論單位等을 相互 交換的으로 使用하겠다.

(2) 定義 definition)

科學的 用語의 意味를 具體化시키는 方法이 定義이다. 이려한 科學的 用語의 의미를 特징 지우는 方法에도 두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實質的 定義이며 다른 하나는 名目的 定義이다.

a. 實質的 定義(real definition) 實質的 定義는 이미 使用되고 있는 用語의 認定된 意味(meaning) : 서술 또는 描寫(describe)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려한 定義方式을 描寫的 또는 記述的 定義(descriptive definition)라고도 한다. 描寫的 定義에서는 어떤 用語에 관하여 認定되고 있는 의미를 分析하고 다른 用語들로서 描寫하는 것인데 이때 이려한 다른 用語들의 뜻은 이미 '나려진 것'이어야 한다.⁽²⁰⁾ 떠로는 實質的 定義란 어떤 實體의 「本質的 性質」 또는 「本質的 特性」에 관한敘述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實質的 定義도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²¹⁾ 첫째는 소위 意味分析(meaning analysis) 또는 分析的 定義(an analytic definition)이다. 이것은 定義하려는 用語(definiendum)의 意味를 이미 그뜻을 알고 있는 다른 用語(definiens)들을 통하여 特징지으려고 하는 것으로서, 그러기 上 定義가 과연 妥當한가의 여부는 이러한 다른 用語들(definiens)의 構成部分인 각 表現의 意味를 따져 볼으로써 確認되는 것이지 어떤 經驗的 調查를 통하여 確認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實質的 定義가 經驗的 事實로서 主張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經驗的 分析(empirical analysis)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려한 定義는 經驗的 法則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定義가 妥當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確認하려면 經驗的 證據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기 追加해서 言及해 둘 것은 소위 概念解說(concept explication)이라는 것이다.⁽²²⁾ 概念解說은 日常的인 用語 또는 科學的 用語의 모호한 表現에 대하여 解說者 나름대로 새롭고 正確한 의미를 부여하여 어떤 明示的이고도 임격한 論議에 適合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描寫的 定義와 區別될 수 있는데 그 理由는 解說이 一種의 提案의 性格을 띠는 것하기 때문이다. 解說者가 새로운 意味로 使用할 것을 提案하는 性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內容의 真偽를 따질 수는 없다. 그러나 解說도 從前에 그러한 用語를 사용해서 行하면 發現의 많은 部分을 再構成할 수 있게하여 주어야 하며 또 이렇게 再構成된 概念을 통하여 從前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도 업밀하며 전진한 理論體系를 發展시킬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한다. 결국 어떤 一定한 用語의 解說은 意味分析과 經驗的 分析 두가지의 本質的 側面을 統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 名目的 定義(nominal definition)

(20) Hempe,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op. cit., pp. 85-86.

(21) Hempe, *Fundamentals of Concept Formation*, op. cit., pp. 6-8.

(22) *Ibid.*, p. 10-12.

名目的 定義는 一定한 用語에다가 特別한 意味를 부여하기로 하는 約定 또는 規約(stipulation)이다. 이때의 用語는 새로 만들어 낸 것이거나, 既存의 것을 좀 더 專門的 技術的으로 使用하기 위한 것이다. 名目的 定義의 特징은 「어떤 特定한, 定義되고 있는 表現(definiendum)은 이미 그 意味가 알려진 다른 어떤 定義하는 表現(definiens)과 同義的이다」라고 하는 一種의 規約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規約的 定義(stipulative definition)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定義를 通해서 새로운 名稱 즉 用語가 생겨난다. 이러한 定義는 「——(定義되고 있는 表現)은……(定義하는 表現)라고 定義하자」라는 形式을 띠한다. ⁽²³⁾

名目的 定義는 어떤 對象이 가지고 있는 屬性, 類, 關係 및 機能等과 같은 非言語的 實體인 特定한 생각 즉 概念을 가려내서 그 概念을 지칭하거나 그 概念에 관하여 言及하는데 있어서의 更宜로 그 概念에다가 特別한 名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特徵때문에 名目的 定義는 概念을 定義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即 그 概念을 지칭하고 있는 表現과는 區別될 수 있는 概念自體를 定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定義는 「——」라는 表現을 定義한다고 할 수도 있고 「——」라는 概念을 定義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名目的 定義에 의하여 定義되는 表現은 반드시 單語이거나 한개의 符號일 필요는 없고 그것이 複合語 또는 句節일 수도 있다. ⁽²⁴⁾

c. 經驗的 分析, 意味分析 및 名目的 定義의 差異

實質的 定義의 內容에는 經驗的 分析와 意味分析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 兩者는 相互間에도 差異가 있고 또 名目的 定義와도 다른 特징이 있다. ⁽²⁵⁾

우선 經驗的 分析은 어떤 言語的 表現과 그 意味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用語를 위하여 表現되는 經驗的 現象에 더 관심이 있다. 대개, 經驗的 分析을 表現하는 文章은 一般法則의 性格을 띠며 이것은 科學的 說明의 特殊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에 反해서 意味分析과 名目的 定義는 다 같이 어떤 言語的 表現이 가지는 意味가 무엇인가를 다룬 것이다.

그러나 意味分析(또는 分析的 定義)은 이미 쓰여지고 있는 어떤 表現에 대하여 이미 알려진 同義語로 代置시키므로써 그 意味를 明白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名目的 定義는 새로운 表現과 用語를導入하고 約定에 따라 그 意味를 부여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어떤 用語를 만든 다음 그 뜻을 이미 알려진 用語들을 통하여 밝힐 수도 있고 또한 잘 알려진 一聯의 用語들을 어떤 用語나 表現으로 指稱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概念의 機能

(23) *Ibi l.*, pp. 2-6.

(24) *Ibi l.*

(25) *Ibi l.*, pp. 8-10.

概念이 어떤 現象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일 때, 이러한 概念을 파악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문제에 관하여理解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의 概念의 機能은 教示的(heuristic)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概念은 對象의 屬性을 規定하여 주기도 한다. 또 論理的 概念은 屬性들을 연결시키는 機能을 하나 그 自體가 경험적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政治學의 經驗的 理論을 따져 보려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이 큰 것은 理論의 構成要素로서의 概念의 機能이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 있드시 理論的 單位로 쓰이는 경우를 말하는데, 결국 잘 發展된 理論의 單位로 쓰일 수 있는 概念은 意義가 있는 概念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概念評價의 基準과 관련시켜 다시 뒤에서 알아 보기로 하겠다.

2. 概念導入의 論理

科學理論은 적어도 두개 以上의 概念으로 구성된다. 即 概念과 概念의 相互作用의 關係를 表現하는 것。理論的敘述(言明)인 것이다. 따라서 概念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을 아무리 잘 定義하거나 解明한다고 하더라도 理論이 될 수 없다.

그리므로 理論構成이나 既存理論의 追加發展에 있어서는 흔히 새로운 概念의 導入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概念을 導入하는 方式의 論理 또는 正當性은 어디에 있는가?

(1) 原語와 定義된 用語

엄격히 말하면 理論에 새로운 概念을 導入할 수 있는 方法에는 오직 두가지만 있다. 첫째는 用語의 定義를 通해서 導入하는 것이고 두째는 原語(primitive terms)로서의 概念을 導入하는 것이다. 定義를 通하여 導入된 用語가 定義된 用語(defined terms, 또는 sophisticated units)이다.⁽²⁶⁾

原語와 定義된 用語의 關係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一團의 單語들이 있다고 하자. 이들 여러개의 單語들중에는 서로 같은 뜻을 가진 單語(同義語)들도 있고, 同義語가 없는 單語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 全體의 單語들은 두개의 끝음으로 나누어 놓을 수가 있다. 첫째 끝음에는 同義語가 없는 單語들과 同義語들 중에서 한개씩만 골라 놓을 것들이다. 두째 끝음에 남는 것은 同義語들중에서 나머지 單語들이 될 것이다. 여기서 본 첫째 끝음의 單語들이 原語이며 두째 끝음의 單語들이 定義된 用語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定義된 用語는 언제나 原語에 의하여 代置될 수 있고 따라서 除去될 수도 있는 것이다.⁽²⁷⁾ 定義方法은 原語와 定義된 用語를 區分하여 주고 그 代置關係도 정하여 주기 때문에 代置法(rule of replacement)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²⁸⁾

(26) Richard S. Rudner,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p. 19; Robert Dubin, *Theory Building* (New York: The Free Press, 1965)에서는 defined terms를 sophisticated units라 부르고 있다.

(27) Rudner, *op. cit.*, p. 14.

(28) *Ibid.*, p. 15.

概念導入은 위에서 본 것처럼 原語의 追加나 定義를 通해서만 可能한 것인데, 엄격히 말한다면 어린 理論에다가 새로운 概念을 導入할 때 原語를 追加하는 것은 理論의 단순한 追加發展이 아니라 오히려 既存理論을 新理論으로 바꾸어 놓는 것과 같아진다. 왜냐하면 理論의同一性(dentity)을 결정하여 주는 것은 그 理論이 가지고 있는 一團의 原語들이기 때문이다. 反面에 定義를 통한 概念의 導入은 그 理論全體로서의 斷言的(assertional)인 힘을 그대로 保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定義된 用語의 導入을 통해 理論의 叙述의 힘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叙述의 簡潔性이 높아지는 것이다.⁽²⁹⁾

定義의 하여 導入된 어떠한 概念이나 表現이던지 原語에 의하여 代置시키거나 除去할 수 있으므로 순전히 原則의으로만 말한다면 定義된 用語는 省略될 수 있고 특히 名目的 定義(nominal definition)는 省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理論의 叙述을 原語로만構成한다는 것은 너무나 번잡하고 알아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定義된 用語가 必要한 것이다. 複合的인 論理的, 數學的 및 經驗的 科學에 있어서 定義, 특히 名目的 定義는 實際로 不可缺하다.⁽³⁰⁾ 여기 하나 附記할 것은 科學理論에 있어서의 名目的 定義가 갖추어야 할 한가지 要件이다. 그것은 定義된 用語나 表現은 그와 同一한 뜻을 갖는 다른 用語로 除去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名目的 定義는 任意的(arbitrary)일 수 있다고는 하지 않거기에도 限界가 있다. 즉 概念은 理論에 있어서 적절한 機能을 수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相互 모순되는 概念들이 名目的 定義를 통해 導入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여기에 限界가 있는 것이다.⁽³¹⁾

原語(primitives, 또는 primitive terms)를 필요로 하는 理由는 무엇인가? 흔히 말하기를 科學理論에서 使用되는 모든 用語를 定義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論理的으로 不可能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乙이 甲을 定義하고 丙은 乙을 定義하고 또 丁은 丙을 定義하여야 하는등 無限定義로서 빛어 날 수 없고 때로는 循還定義에 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科學體系에 있어서의 모든 用語를 그 體系가 가지고 있는 다른 用語로 定義하기는 어렵다. 그리하여 그 體系내에서만 定義되지 않으며 다른 用語를 定義하기 위하여 使用되는 用語가 必要하다. 즉 原語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³²⁾ 原語는 그 體系내에서는 定義되지 않지만 특정한 意味가 부여된다.

(2) 觀察될 수 있는 用語와 技術的 用語

그러나 原語의 意味는 어떻게 부여되며, 原語에게 의미가 부여될 때 그것이 理論體系에 있어서 어떤 意義가 있는가? 이 問題는 概念이나 用語가 어떻게 經驗的인 準據(referents)와 연결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소위 觀察될 수 있는 用語의 문제를 알아보아야 한다.

(29) *Ib d.*, p.19.

(30) Hempel, *Fundamentals of Concept Formation*, p.17.

(31) *Ib d.*, pp.17-18.

(32) Hempel,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pp.87-88.

우리가 理論에서 使用할 수 있는 모든 用語는 첫째, 論理와 數學의 單語들과 두째 論理外의 單語(extralogical vocabulary) 또는 記述的 用語(descriptive terms)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記述的 用語도 原語와 定義된 用語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考察해 본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用語들 중에는 日常的으로 經驗할 수 있는 것을 指摘하는 用語도 있고 좀 더 추상적인 用語도 있을 수 있다. 즉 우리의 直接的인 경험이 의하여 얻을 수 있는 資料를 묘사하는 用語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直接的인 경험이 可能한 特性들은 「觀察될 수 있는 것」이라 指稱하고 「觀察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用語를 觀察用語(observation term)라고 할 수 있다.

科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一般的인 說明과豫測의 原則을 構成하기에 適合한 概念體系를 發展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좀 더 높은 正確性, 넓은 範圍 및 高度의 經驗의 確證을 가진 理論을構成하려면 技術的 用語라고 할 수 있는 特別한 概念들의 綜合的 體系를 發전시켜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概念들은 아주 抽象的이지만, 終局的으로는 日常的인 경험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經驗科學의 技術的 用語는 우리의 日常的인 觀察用語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結果를 통하여 科學의 專門用語가 經驗的 內容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³³⁾

이것을 다시 原語와 관련시켜 생각할 때 原語는 어떠한 基準에 따라 選定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即 原語는 觀察用語 또 實驗用語(experimental terms)이어야 한다. 이렇듯 原語自體가 實驗的으로 또는 經驗的으로 識別可能한 準據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主張의 重要性은 어디에 있는가? 그 重要性은 萬一 위에 말한 條件을 充足시키면 우리가 定義를 통하여 進入하는 모든 概念은 결국 實驗的으로 檢證可能한 概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³⁴⁾ 用語를 통해 定義된 用語 即 術語를 定義하는 것이므로 原語가 經驗的인 것임이니 그린 原語들로 定義된 術語들도 經驗的 意味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經驗的 意味들을 지니는 用語 또는 概念體系를 가지고 있는 理論도 經驗的인 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事實的 判斷에 適合할 것이다.

(3) 經驗主義과 操作的 定義

그런데 原語가 經驗的 의미를 지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좀은 意味의 經驗主義(narrow empiricism)이며, 經驗主義의 극단적인 적용을 試圖하는 것이 操作主義(operationism)이다. 操作主義가 가지고 있는 中心的인 생각은 모든 科學用語의 의미는 그 適用基準을 마련하여 주는 乎湊한 實驗(testing)節次를 나타냄으로써 具體化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소위 操作的 定義(operational definitions)라는 方法이다.⁽³⁵⁾

(33) *Ibid.*, p. 1.

(34) Rudner, *op. cit.*, p. 21.

(35) Hempel,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p. 88.

操作的 定義를 내세우는 이들의 主張은 모든 概念의 定義는 그것을 觀察하거나 確認할 수 있는 節或 또는 實驗的 道具의 具體化를 통해서 그 意味를 分明케 하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操作的으로 定義될 수 없는 概念은 科學的으로 받아드려질 수 없는 概念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操作主義의 警告는 科學活動에 관한 哲學的 그리고 方法論的研究를 促進시켜주었다. 그나하여 心理學과 社會科學의 調查方法에도 커다란 影響을 미쳤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科學의 經驗的 性格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는 操作主義는 科學概念의 實驗的 및 理論的인 側面을 輕視하는 경향이 있고 概念形成과 理論構成間의 커다란相互依存性을 輕視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³⁶⁾

(4) 性向用語와 理論的 用語

操作的 定義를 主張하는 사람들은 萬若 操作的 基準이 다르면, 그러한 概念들은 相互間에 相異한 概念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하나의 概念에 對한 여러가지 操作的 定義가 있느니 때 그 각각의 定義는 새로운 概念을 導入하는 것이지,同一概念을 여러가지 方式으로 定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³⁷⁾

社會科學研究에 있어서 흔히 使用하는 가장 初步的인 概念인 「年齡」의 경우를 例로 들어보자. 「年齡」에 對한 操作的定義는 “戶籍에 記入되어 있는 生年月日로부터 計算된 年數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本人에게 “貴下는 지금 滿으로 몇歲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對答하는 ‘年數이다’라고 할 수도 있으며 “觀察者가 그 사람의 身體的인 表 모습을 바라보고 받게 되는 印象으로부터 計算하는 年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操作的 定義에 의하면 이 모든 定義는 年齡이라는 하나의 概念을 定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年齡1, 年齡2, 및 年齡3을 定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事實, 科學活動의 大部分은 너무 번거롭고 오히려 그렇게 發展된 理論의 適用범위가 극히 限定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操作的 基準마다 새로운 概念을 導入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特定科學分野의 法則體系와 理論體系의 發展에 따라 그것이 使用하고 있는 中心概念에 대하여 원래 適用하던 操作的基準이 修正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³⁸⁾

經驗主義를 위와같이 操作主義로 限定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좁은 意味의 經驗主義에는 또 다른 難點들이 있다. 即 「아무리 抽象的인 科學的인 叙述이라도 그것을 構成하고 있는 技術的 用語(technical terms)는 그 定義를 通해서 觀察用語(observation terms)로 轉換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文字 그대로 따르기에는 難點이 있고 때로는 不可能하다. 이러한 難點을 가진 것 ① 性向概念(dispositional concepts 또는 dispositional terms)과 ② 理論的 概念

(36) *Ib. I.*, p. 91.

(37) *Ib. I.*, p. 94.

(38) *Ib. I.*, p. 95.

(theoretical concepts 또는 theoretical terms) 들이다.⁽³⁹⁾

첫째 性向概念은 어떤 對象이 가지고 있는 屬性의一般的 傾向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權威主義的이다」라고 할 때 「權威主義的」이라는 概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一般的 性向만을 指稱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狀況下에서 權威主義의 行動을 表示한 것을 意味하지 않는다. 權威主義行動은 多樣한 狀況下에서 示顯될 수 있지만 「權威主義的인 것」自體를 觀察케 하여 주는 어떤 것(primitives)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여기서 可能한 것은 權威主義의 性向을 알아볼 수 있는 狀況만이 觀察可能한 것에 의하여 지칭되었을 뿐이다. 이와같이 「性向概念」에 대하여는 原語로 代置하기도 어렵고 더구나 觀察可能한 것에 準據를 둔 原語로 轉換시키기가 더욱 어렵고, 오히려 그러한 性向의 示顯을 部分的으로 觀察할 수 있게 하여 주는 狀況의 提示, 또는 條件의 提示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염밀히 말해서 明示的 定義의 基本節次를 전부 따르는 것이 아니라 部分的 또는 條件附定義를 하는 것 뿐이다. 이것을 還元節次(reduction procedure)라고 부르기도 한다.

性向概念은 또 그 意味를 推定的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소위 意味의 開放性(openness of meaning)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한편으로 開放性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意味가 推定的으로 나마 分明하면 그런 用語는 마치 觀察可能한 準據(reference)를 가진거나 마나 가지로서 經驗的研究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開放性이 오히려 理論構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即 意味의 開放性을 가진 用語는 그 意味가 部分的으로 단 決定된 用語로서 現在 使用되고 있는 理論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좀 더一般的인 다른 理論의 構成에서도 쓰일 수 있는 可能性이 있으므로 오히려 多幸스러운 일이다. 科學의 用語는 모두 觀察可能한 것에 의하여 完全히 定義되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이러한 도움이 될만한 可能性을 빼앗아가는 것이 되어버린다. 좋은 經驗主義의 條件에 따르기 어려운 두째의 것은 理論的 概念 또는 理論的 用語들이다. 理論的 用語는 「觀察될 수 없는 實體(entity)가 가지고 있는 觀察될 수 없는 特性 또는 明示的으로 나타낼 수 없는 特性를 指稱하는 것」인데 理論展開에 있어서 不可缺한 것이다. 이러한 理論的 用語중에는 科學者들이 精神的 또는 知的인 合成이나 綜合을 통하여 만들어 낸 것, 即 理論的 構成語(theoretical construct)가 있다. 이들 理論的 用語들에 대하여는 直接 觀察될 수 있는 準據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다만 2·분적으로 解釋(interpret)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理論的 概念이나 用語와 그 經驗的 意味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即 어떤 理論에서 사용되는 理論的 用語에 의하여 構成되는 理論體系를 設定하고, 이러한 體系를 經驗的으로 해석하는 合同作業을 통하여 導入된다고 할 수 있으며, 理論體系 자체의 經驗的 解釋를 통해서 理論的 用語도 經驗的 意味를 얻게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概念形

(39) 이 部分에 관해서는 Hempel, *Fundamentals*, op. cit., pp. 24-36 및 Rudner, op. cit., p. 21 參照.

成과 理論構成의 不可分性이 있는 것이다. 대개 중요하고 여러가지 쓸모가 높은 理論에 있어서는, 理論的 概念을 排除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을 버리고 어느 것을 擇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도 明確한 基準은 없다.

(6) 理論的 用語와 그 解釋

概念形成과 理論構成은 並行하는 것이라는 點에 관해서는 本稿에서 여러번 強調한 바 있다.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하나의 理論體系는 公理形態로 된, 解釋되지 않은 理論일 수도 있다. 이런 理論의 特徵은 첫째 一團의 特定한 原語들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그 理論內에서는 定義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모든 論理外의 用語, 即 記述의 用語(descriptive terms)들은 原語에 의한 名目的 定義를 通하여 導入된다. 두째 그런 理論은 一團의 公理 또는 基本假說을 가지고 있으며 그 理論의 다른 모든 叙述(言明)은 이러한 公理의 論理的 演繹을 通하여 形成된다.⁽⁴⁰⁾

萬若 이와같은 理論體系가 經驗的 現象에 適用되려면, 그 理論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特徵의 用語는 既存의 理論以前의 用語(pretheoretical terms)에 의하여 적절히 解釋되어야 한다. 즉 科學的인 術語, 특히 高度의 理論的인 用語를 實際의 어떤 現象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基準을 정하여 주는 것이 解釋的 文章이다. 우리는 定義의 方式에 관하여 論할 때 名目的 定義는 一種의 規約的인 것이며 實質的 定義는 描寫的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였는데 解釋的 文章은 흔히 定義가 가지는 規約的 機能과, 經驗的一般化로서의 描寫的 機能을 結合시키고 있다. 따라서 特定한 理論의 用語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名目的 및 實質의 用語가 解釋된 假說은 觀察可能한 現象을 통하여 檢證이 可能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經驗的인 科學理論은 解析되지 않은, 演繹的으로 發展된 體系와 이들의 用語와 文章에 대하여 적절한 經驗的 意味를 부여하는 解釋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點은 다음 機會에 理論과 模型에 관하여 論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으로 보나, 理論體系는 적절한 經驗的 解釋을 통하여 檢證될 수 있는 理論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構成用語가 解釋된 假說은 觀察可能한 現象을 통하여 檢證이 可能하게 된다.

解釋文章이 定義의 規約的 描寫的 機能을 結合시키고는 있지만 그것은 定義와는 다르다. 科學理論과 解釋文章은 대개 理論用語가 사용될 수 있는 文脈的인 解釋단을 제공하며 이런 點에서 그것은 限定的이고 또 條件附인 文章이다. 科學的 用語는 어느 것이나 一定한 數의 解釋文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無數히 많은 경우에 適用될 수 있고, 이 點에서 다시前述한 日 있는 意味의 開放性(openness of meaning)이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7) 構成法(composition rule)

(40) 理論的 用語의 解釋에 관하여는 Hempel, *Fundamentals*, op. cit., pp. 33-35 및 Hempel,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op. cit., pp. 98-100 參照.

理論體系에 새로운 概念을導入할 수 있는 方法에는 두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原語를導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原語들을 통하여 定義된概念들을導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概念이나 用語의 定義에는 單純定義(simple definitions)와 複合定義(complex definitions)가 있다. 單純定義는 「甲을 ○라고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의 用語를 다른 用語나 表現으로 代置시켜 놓은 것이다. 複合定義는 어떤 用語나 概念을 定義함에 있어서 여러개의 單純定義를 結合構成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複合定義는 각각 그 自體로서는 單純定義인 여러개의 經驗的 構成部分(empirical components)을 結合시켜 주는 構成法(composition rule)을 포함하고 있다.⁽⁴¹⁾

經驗的 構成部分을 結合시켜 주므로써 複合定義를 可能케 하여 주는 構成法 自體도 따지고 보면 그 複雜性에 있어서 程度의 差가 있다. 그리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單純定義도 실상은 構成法을 통하여 形成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定義의 복잡성 때문에 때로는 긴 論議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겉으로 봐서 단순히 經驗的 關係를 提示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定義의 여러가지 構成部分을 解明하여 주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概念解釋(概念解釋 concept explication)이라 하여 위에서 考察한 바 있다.

構成法의 構造는 經驗的 概念이 아니라 論理的 概念으로 이루어진다. 構成法은 여러가지 屬性을 結合시키는 方法이므로, 結合되고 있는 屬性的 內容과는 別途로 절트 될 수 있는 것이다. 社會科學에 있어서 흔히 쓰이는 構成法은, ① 比率, ② 둘 또는 그 以上的 經驗的 部分의 單純結合 및 ③ 比重부여 等이다.

構成法의 理論의 重要性은 어디에 있는가? 흔히 「모든 定義는 任意의으로 實質이다」라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構成法을 選擇하건 그것은 任意의이다. 그러나 定義와 마찬가지로 構成法도 理論의 重要性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評價될 수 있다. 即 構成法도 理論體系에 비하여 보아서, 重要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社會科學 發達過程에 있어서 흔히 政治的 變化에 따라 構成法이 修正되는 수가 있었으며,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理論의 革新은 徒前에 結合되지 않던 둘 또는 그 以上的 經驗的 構成要素들을 構成法을 通하여 結合시키므로써 이루어지는 수도 있었다. 理論의 重要性이 增大될 수만 있다면 두개의 經驗的 構成要素를 「單一」概念으로 結合시키는 것은 正當화될 수 있는 것이다.

構成法은 理論的 概念이기는 하지만, 그 使用에 限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構成法을 쓰느냐에 따라 結合될 수 있는 經驗的 構成要素의 性格에 制約이 있는 反面, 어떤 構成要素들이냐에 따라 그 結合에 사용될 수 있는 構成法도 制約을 받는 것이다. 構成法을 内包하고 있는 概念들 即 複合概念들은 構成法의 論理와 그 概念의 經驗的 要素間의 對應關係(correspondence)를 論理的으로 따져 볼으로써 評價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比率關係가

(41) 構成法에 관한 論議는 Teune, *op. cit.*, pp. 5-6 參照.

成立하지 않는 經驗的 要素들을 比率構成法에 의해 結合시켜서 複合概念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3. 概念評價의 基準

어떤 概念을 評價하는 基準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어떤 概念이 含蓄性이 많으며 通常의 用例에 따르고 說得力이 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하여 評價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科學活動을 위한 基準이 될 수 없다. 또 어떤 概念이 科學活動上 쓸모가 있느냐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데 이때의 基準은 教示의 明瞭性, 組織化, 單純化等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關心이 있는 것은 科學知識의 一部로서의 概念은 評價하는 基準이며, 여기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經驗的 精密性이고 두째는 理論的 重要性이다.⁽⁴²⁾

(1) 經驗的 精密性(empirical precision)

科學概念 또는 用語의 經驗的 精密性이란 그 用語가 指稱하고 있는 經驗的 準據가 얼마나正確한가 하는 것으로서 定義에 의하여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直接「볼 수 있는 것」과 연결되는가 하는 程度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原語와 定義된 用語를 論할 때 原語가 觀察可能⁽¹⁾ 것(observable)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선 觀察可能한 것이란, 互觀性(inter-subjectivity)이 있어야 되고 여러 觀察者들 사이의 信賴性의 程度에 의하여 결정된다. 一應, 모든 概念은 經驗的 精密성이 높을수록 좋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理論의 重要性과는 交換關係에 있을 수 있다는 點을 考慮해 넣어야 한다. 즉 經驗的 精密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理論의 重要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理論의 重要성이 높은 것중에는 經驗的 精密성이 낮은 것이 있으므로 어느 쪽을 擇할 것이냐 하는 것은 研究者의 입장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이 點은 概念의 理論의 重要性에 관하여 알아 본 다음에 다시 言及하겠다.

(2) 理論的 重要性(theoretical importance)

Gustav Bergman은 概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의 概念은 真도 假도 없으며 오직 命題만이 真偽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概念은妥當한 것도 不當한 것도 아니고 오직 論議에 대해서만妥當하나 아니나를 따질 수 있다. 그러나 定義된 記述의 概念中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間의 差別이 있다. 이것에 대한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나는 하나의 概念이 意義가 있거나(significant), 意義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萬一 하나의 概念이 우리가 真實이라고 믿을만한 理由가 있는 法則的 言明 속에서 다른 概念들과 함께 使用되고 있다면 그리한 경우에 限해서 그러한 概念은 意義가 있다. 그러므로 좀 모호한 表現이기는 하지만 어떤 概念은 다른 概念보다 더 意義가 있다. 例를 들면, 한두개의 외떨어진 法則에서만 使用되는 概念은 훨

(42) 概念評價의 基準에 관한 考察은 Teune, *op. cit.*, pp. 4-5 및 Hempel, Fundamentals, *op. cit.*, pp. 39-49 參照.

신範圍가 넓은 잘定立된理論에서使用되는概念보다는意義가 적다. 그뿐만 아니라 오는날意義가 없던concept이 앞으로意義가 있는concept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⁴³⁾

위에서 본概念의意義라는 것은 concept의理論的,體系의重要性을 일컫는 것으로서理論에서 차지하는機能의 문제이다. concept이理論의重要性을 지니려면, 이러한concept이一般法則과理論이라는形態로說明과豫測을 위한原理도提供할 수 있어야 되지만理論自體가 얼마나「훌륭한 것」이냐에도 달려 있다.

concept의理論의重要性은 이와같이 그豫測力(predictive power)에 달려 있는데豫測力에도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①豫測의强度 또는正確性(strength or accuracy of prediction), ②豫測의一般性(generality of prediction) 및 ③ 다른理論과의關係(its relationship to other theories)等이다. 이러한 세가지는 다같이達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達成하려면 다른것을 희생시켜야 되는交換關係(trade offs)에 있다. 따라서 어느것을擇할 것인가는研究者의判斷에 달기는 수밖에 없다.

대개學者들은自己의關心에 따라 위에서 본具體的인基準을 달리評價한다. 資料蒐集을 중심으로 하는一種의應用研究에서는豫測力의正確性을 중시하고, 소위理論面에置重하는研究에 있어서는一般性을重視한다. 그리고探索的인研究에 있어서는 어떤concept이既存의 다른體系와符合되느냐 않느냐하는關聯性을 더重視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經驗的精密性과理論의重要性間의關係

concept의經驗的準據가精確하여야만 좋은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充分한 것은 아니다. 적용범위도넓어야 한다. 社會科學者들은concept이 좀不明确하더라도,理論의重要性, 특히一般性이 있는쪽을重視하는 경향이 있는듯하다. 다시말하면, 아무리明确하더라도論理的幅이 좁은concept은 크게쓸모가없는것으로 보고 있다.

以上에서 드러온 바와같이科學的concept은經驗的理論의重要性을 다같이지니고 있어야되는데, 때로는理論體系의體系의豫測을높이기위하여concept의經驗的解석자체를修正하여야 되는 때도 있다. 따라서累次言及한바와같이科學的研究에 있어서,概念形成과理論構成은並行하는 것이다.

III. 概念의種類

1. 概念區分의基準

科學concept도여러가지基準에 따라分類될 수 있다. ①概念의機能 ②定義의構造 ③對

(43) Bergman *op. cit.*, p.50. 이文章에 나오는「記述的concept」이라는말은우리가區分한論理外的概念(ex-logical concepts)과같은것이고, 實質的定義에의하여定義되는concept을말하는것이아니다.

象의 特徵! ④ 構成法이나 測定의 性格等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먼저 對象과 屬性을 区分하고 나서 屬性을 定義하는 構造나 形式에 따라 概念들을 区分하고, 對象概念의 特徵에 依하여 알아 본 다음, 構成法이나 測定의 性格에 따른 概念의 区分을 다루겠다.⁽⁴⁴⁾

2. 對象과 屬性

對象(objects)은 事物自體이다. 그러나 우리가 對象自體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能力에는 限界가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對象概念의 本質을 直接 定義하기 보다는 어떤 特定한 屬性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에 따라 對象을 設定해 나간다. 即 어떤 屬性들인 p_1, p_2, \dots, p_n 을 가진 事物들이 研究나 分析 또는 理論單位가 되도록 規定함으로써 對象이 規定되는 것이다. 이 點에 관하여는 對象concept의 問題라는 側面에서 다시 論하여 보겠다.

屬性(property)은 事物들이 가지고 있는 特徵이다. 우리는 事物 그 自體를 한꺼번에 보고 把握할 수는 없고 人間能力의 限界 때문에 오히려 事物의 一部分으로서의 屬性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 라고 말하는 學者도 있다. 그리고 實際 研究에 있어서도 屬性의 値의 變化만을 다루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屬性中心의 概念에는 여러가지 類型이 있을 수 있는데前述한 바 있드시 定義構造나 形式의 差異에 따라 区分하여 볼 수 있다. 다음에는 이러한 区分에 관하여 알아 보겠다.⁽⁴⁵⁾

3. 定義의 構造에 따른 屬性concept의 区分

이것은 屬性을 연결시키거나 結合시키는 叙述의 構造 또는 形式의 差異에 따른 것인데, 여기에는 列舉的 概念, 結合的 概念, 關係的 概念 및 統計的 概念等이 있고,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理論構成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으나 하나의 學問을 연구하거나 教育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單位로서 總和的 概念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⁴⁶⁾

列舉的 概念(enumerative concept)이란 어떤 事物이 그 모든 條件下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의 屬性的 特徵이다. 즉 우리가 觀察하거나 想像할 수 있는 事物의 狀態如何에 不拘하고 그러한 屬性은 늘 存在한다는 것이다. 列舉的인 屬性은 보편적이므로 考察對象이 되고 있는 事物의 어떠한 標本(sample)에도 存在하며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 이런 理由로 列舉的 概念은 두개의 補完의 値特性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어떤 事物의 모든 狀態下에서 보편적으로 存在한다는 것이고, 두째는 零의 値(zero value)을 가진 어떤 屬性도 列舉的 概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人間의 性이나 年齡等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結合的 概念(associative concept)은 어떤 事物의 몇몇 特定한 條件下에서만 갖게 되는 하나의 屬性的 特徵이다. 零의 値을 가질 수 없다는 點만이 다르고 그 外에는 列舉的 概念과

(44) 以下 概念區分의 基準은 Teune, *op. cit.*, pp. 9-11을 修正使用하였다.

(45) Russell R. Ackoff, *The Design of Social Research*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pp. 59-64).

(46) Dubin, *op. cit.*, pp. 50-63 參照. Dubin은 概念이라는 말대신에 「單位」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一貫性을 위해 單位를 概念으로 바꾸어 使用하였다.

같다. 이론⁷ 零의 값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負의 값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結合的 概念이 가지고 있는 決定的인 특징이며 그것이 어떤 事物의 特定한 狀態와의 結合下에서만 나타나는 것⁸으로 「結合的」이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의 所得은 特定한 狀態下에서만 볼 수 있는 屬性이며 경우에 따라 그 값은 零이거나 負일 수도 있다.

關係的 概念(relational concept)은 一定事物의 特性인데 그것은 오직 他屬性들과의 關係에 의해서만 決定된다. 이러한 關係가 成立되는 것에는 두 種類가 있는데, 하나는 屬性間의 相互作用關係의 表現이며 다른 하나는 屬性들의 結合關係를 表現하는 것이다. 따라서, 關係的 概念은 적어도 두개의 다른 屬性들로 부터 導出될 수 있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한다. 거기로 말하면 關係的 概念은 언제나 그 構成要素인 屬性들로 分析될 수 있다. 따라서 關係的 概念은 列舉的 概念이나 結合的 概念보다 향상 더 커다란 複合性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複合性 때문에 그러한 用語는 社會現象에 관한 理論構成에 있어서는 分明한 利點이 있고 더 興味가 있다. 왜냐하면 社會現象은 複合的인 것인데, 이와 같은 用語가 그 複合的 現象을 要約表現하여 주기 때문이다. 가령 「權力」이라는 概念은 적어도 甲과 乙이라는 두사람의 關係와 甲의 性向 및 乙의 性向을 複合的으로 表現하는 것이다. 同時에 이러한 用語는 그것이 複合的인 것임을 잊고 使用한다던지 그 複合關係가 不分明하기 때문에 理論構成이나 理論的 敘述의 內容이 不分明해질 可能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用語自體를 摳人化(reify)하여 마치 하나의 實體인 것처럼 다루게 되는 傾向도 助長한다.

統計的 概念(statistical concepts)도 事物들의 特性으로서, 事物들이 가지고 있는 屬性의 分布를 要約表現하는 用語이다. 屬性分布의 要約은 中心傾向, 分散 및 相對的 位置等을 要約하는 것임은 잘아는 사실이다.

끝으로 總合的 概念(summative unit)이란, 一體의 複合的 事物을 지칭하는 總體的인 概念으로 經驗的 準據가 극히 모호한 경우이다. 이 概念의 特徵은 數 많은 屬性를 한데 合쳐서 그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表現하는 이름으로 全體를 表現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之明하게 定義할 수 없거나 明示되지 않는 數 많은 意味를 가질 수 있는 것이 總合的 概念이다. 이와 같은 用語가 學問上 필요하기는 하지만 正確性을 중시하는 側에게는 別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評價되고 있다.

以上에서 3 가지 概念을 살펴 보았는데, 그렇게 區分하는 理由는 각각의 概念을 理論構成에 있어 연결시켰을 때 概念의 特性에 따라 敘述範圍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좀 더 技術的인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論議를 省略하겠다.

4. 對象概念의 問題

對象概念(object concepts)은 그 對象의 性格에 따라 個人, 集團 그리고 集合體等으로 分類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對象概念의 중요성과, 對象 및 屬性概

念間의 關係를 간단히 살펴 보겠다.⁽⁴⁷⁾

對象은 事物自體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現象, 現象의 種類 또는 現象의 體系로서 觀察될 수 있는 어떤것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社會理論은 대개 社會的 對象이 가지고 있는 屬性이나, 特性間의 關係를 中心으로 構成된다. 그러나 屬性的 性格自體도 우리가 對象을 어떻게 定義하느냐에 따라 可變性이 制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研究에 있어서 어떤 屬性을 定義함에는 이를 屬性이 어느 對象의 屬性인가를 밝히는 것이 重要하다. 社會科學者가 興味⁽⁴⁸⁾ 갖는 對象의 大部分은 組織, 集團, 또는 大規模的 社會體系이므로 研究對象을 定義하고 나서, 그 對象의 屬性들이 어떻게 關係되어 있는가를 檢討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對象이 없는 概念도 있기 때문이다.

對象定義가 적절히 된 것인가 아니냐를 評價하려면, 研究되고 있는 屬性들이 그 構成對象들 사이에서 經驗的으로 變化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가령 몇개의 集團이 있는데 이들 集團들에게서 볼 수 있는 屬性이 集團마다 더 많거나 적거나 變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變化할 \therefore 없는 것이라면 對象定義가 잘 못된 것이다.

특히 社會科學에 있어서 주된 概念上의 문제는 研究對象을 定義하기 위하여 使用된 屬性과 그렇기 定義된 對象이 가지고 있는 屬性을 區別하는 것이다. 即 定義와 經驗的 觀察은 區別되어야 한다. 우리가 社會科學에서 흔히 犯하는 過誤는 對象을 定義하기 위하여 쓰인 屬性的 表現이나 意味를 마치 經驗的 主張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거의 同一論(tautology)의in敘述이 생기는 것이다. 即 어떻게 變化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屬性이 있다고 할 때, 바로 이 屬性의 存在여부에 따라 對象을 定義해 버리면 그 屬性이 變할 수 있는範圍⁽⁴⁹⁾를 制約될 수 밖에 없다. 가령 여러 國家間에 民主主義的 屬性이 어떻게 變하는가 即 差異⁽⁵⁰⁾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경우에 民主主義的 屬性을 가진 國家만을 對象으로 定義해 놓고서 民主主義的 屬性의 變化를 보려고 한다면 그 變化的範圍는 극히 制約을 받아 결국 「民主主義的 國家에서는 民主主義的 屬性이 높다」라고 하는 同一論에 빠질 可能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對象의 種類를 定義하기 위하여 使用되었던 屬性을 對象定義에서 分離시켜서 變數로서 연구될 수 있고 또 檢討되고 있는 變數를 對象種類의 定義나 再定義를 위하여 量化化시킬 수도 있다. 이 方法도 理論的 革新을 可能케 해 준 하나의 方法이다. 가령 어떤 對象定義語로 定義해 놓은 모든 國家들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가 分析할 수 있다. 그런데 韶一 크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相關關係를 보여주는데 滿足스럽지가 못 할 때에는, 「크기」에 따라 國家들을 再分類定義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即 「크기」아닌 다른 屬性들을 연 \cdots 하기 위하여 一團의 對象들을 再定義할 수 있는 것이다.

(47) 이 절(分)의 論議에 관해서는 Teune, *op. cit.*, pp. 7-9 參照.

5. 構成法이나 測定의 性格에 따른 概念區分

이러한 2類에 따르면, 우선 構成法이 없는 單純定義나 또는 構成法이 있는 複合定義나에 따라 概念들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測定의 性格에 따라서도 區分할 수 있고 이것은 흔히 말하는 尺度(scale)의 差異에 따른 것이다. 尺度에는 名目(nominal), 序列(ordinal), 間隔(interval), 그리고 比率(ratio) 尺度가 있다. 그렇듯이 概念에도 名目的으로 分類된 概念, 序列表示的인 比較概念, 間隔表示的인 量的 概念 및 比率을 나타낼 수 있는 比率概念이 있는 것이다.⁽⁴⁸⁾

名目的으로 分類되는 概念은 對象이나 屬性의 存在를 어떤 範疇別로 分類해놓은 것들이다.

序列的인 比較概念은 屬性의 強・弱 또는 多・少等을 比較할 수 있는 概念이다.

間隔表示概念은 特定한 屬性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量的으로 表示할 수 있는 概念이다. 그리고 比率概念은 몇배나 크고 작은지를 表示할 수 있는 概念인 것이다.

이러한 2類에 있어서는 間隔과 比率을 表示할 수 있게 하여 주는 概念이 더 包括的이고 所望스러운 것이지만, 社會科學에 있어서 量과 比率의 概念을 찾아내는 것은 또한 쉬운 일 이 아니다.

6. 定義表와 分析的 概念表

本稿의 趋旨가 그러하듯이 社會科學者들은 論理的 演繹的으로 體系化되고 檢證될 수 있는 理論을 發展시켜 보고자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로서는 이러한 理論이 많지 않으며, 오히려 後日이 잘 發展된 理論에 포함될 것으로 期待되는 여러가지 概念上의 體系化가 있을 뿐이다. 이를 「非論理的 構成」(non-theoretic formulations)이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⁴⁹⁾

「非論理的 構成」에 관한 名稱도 多樣하여 類型(typology), 類型表(typological schema), 概念表(conceptual schema), 概念模型(conceptual model), 分類體系(classification system), 定義體系(definitional system)等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그 構造面에서 본다면 두 개만이 있을 뿐이다. 그 하나는 定義表(definitional schemata)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分析的 概念表(analytical conceptual schemata)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두가지의 構造를 살펴 본 다음, 이러한 두 種類의 特例라고 볼 수 있는 分類體系(classificational schemata)라는 것과 類型(typology)에 관하여 다음 項에서 따로 考察해 보겠다.

(1) 定義表(definitional schemata)

定義表와 分析的 概念表間의 差異는, 적어도 하나의 言明(statement)을 包含하고 있느냐

(48) David H. Everson and Joann Poparad Paine,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Political Science* (Home wood, Ill.: The Dorsey Press, 1973), pp. 31-33.

(49) 「非論理的 構成」에 관한 以下의 論議에 관해서는 Rudner, *op. cit.*, pp. 28-40 및 Hempel, *Fundamental*, *op. cit.*, pp. 50-78 參照,

아니나에 달려 있다. 定義表는 아무런 言明을 포함하지 않으며, 分析的 概念表는 적어도 하나의 真・偽言明(true-false statement)을 포함하는 것이다.

定義表는 순전히 言語的인 표현이다. 이것은 두가지의 構成要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一團의 言語的 表現들인 術語와 用語 또는 句節이나 文章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言語表現들을 연결시켜 주는 定義의 體系이다. 言語的 表現들도 原語的인 것과 定義된 것으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그것은 定義의 體系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社會科學의 어떤 分野에서 사용될 수 있는 一團의 表現이나 名稱들이 있을 때 어느 表現으로부터 다른 어떤 表現이 定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體系化를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定義表이다. 이렇게 얻어진 定義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使用하고 있는 言語的 表現의 言語的 意味를 分明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言語言的 意味라고 하는 것은 經驗的 意味와 對照시키려는 말인데, 經驗的 意味란 우리가 觀察할 수 있는 現象에 準據를 두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번 言及한 바 있다.

定義表作成도 단순한 言語言的 遊戲가 아니라 科學活動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므로 評價가 있는지를 評價해 보아야 한다.

첫째로는 理論構成에 적절한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理論自體가 없는 狀況이라면 定義表가 理論의 適切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게 된다.

둘째, 理論의 適切성을 따질 수 없으면, 定義表에 포함되는 原語體系가 構造的으로 簡潔한가 하느 것과 그러한 體系의 適用範圍가 넓은가를 가지고 評價하여야 된다.

세째로는 定義表에 使用되고 있는 原語의 表現이 두렵하여서 願한다면 쉽게 經驗的으로 해석될 있는가의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어떻든 原語의 意味를 알 수 없다면 定義表全體로서의 意味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表現들은 原語에 의하여 定義되고 있는데, 原語의 意味가 不分明하면, 그것으로 定義된 다른 用語들의 의미도 不分明하여 질 것이다.

(2) 分析的 概念表(analytical conceptual schemata)

分析的 概念表 또는 分析表라고 불리우는 非理論的 構成은 우선 定義表를 그 構成要素로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定義表를 包含하는 外에 一團의 分析的 또는 論理的으로 真理인 文章을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點이 단순한 定義表와 다르다. 그런데 그 文章 즉 言明。眞인가 虛偽인가 하는 判斷은 經驗的 證據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定義表에 나타난 言語言的 意味를 通하여 分析的 論理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分析的 概念表에 들어 있는 言明은 定義表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되거나 또는 이러한 言明들의 論理的 結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分析的 言明의 論理的 結果는 모두 分析的이기 때문이다.前述한 바 있드시 여기서 말하는 真・偽는 論理的 真實을 말하는 것이지 經驗的

眞實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分析的 概念表에 대한 評價는 定義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理論的 適切性(adequacy), 原論體系의 構造的 單純性, 範圍 및 明瞭性에 의하여 評價될 수 있다.

以上에서 考察한 定義表와 分析的 概念表는 다 같이 그 自體로서는, 社會科學에 있어서 理論으로서의 要件을 갖추지 못한 소위 非理論的 構成物이지만, 終局的으로는 어떤 社會科學理論에 包含될 可能성을 想定하는 것이다.

定義表와 分析表는 어떤 理論體系內에 있어서의 演繹過程에 利用될 수 있다. 왜냐하면 概念과 概念들 間의 意味를 연결시켜 주며 때로는 分析的으로 真理인 言明들을 導出하여 줌으로써 演繹過程上의 具體化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機能을 遂行할 수 있다면, 그것은 科學活動에 있어서의 說明과 豫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完成된 理論을 發展시키기 以前의 理論構成 初期段階에 있어서, 分析表와 定義表등이 종요한 役割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위 教示的 (heuristic)인 것에 不過하다. 即 어떤 理論의 發見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이다.

7. 分類體系와 類型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社會科學에 있어서, 非理論的 構成을 그 構造面에서 본다면 定義表와 分析的 概念表의 두가지가 그 全部이지만, 좀 特殊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考察하려는 分類體系와 類型이다.

(1) 分類體系(classificational schemata)

分類體系라고 불리우는 것중에도 定義表의 一種에 해당되는 것과 分析的 概念表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

定義表(definitional schemata)의 一種으로서의 分類體系는 그 속에 포함되는 分類用語의 모두에 대해서 必要充分條件이 전부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分類體系는 우선 그러한 體系가 적용될 範圍(universe of discourse)가 明示的 또는 暗示的으로 想定된다. 그리고 全對象을 分類하는 소위 範疇用語는 相互排他的이고 完結的(exhaustive)이다. 即 모든 對象이다 分類되고 오직 하나의 範疇에만 屬하도록 分類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한 分類體系에 있어서의 範疇는 좀 더 小區分되거나 가지를 늘려나갈 수 있는 데, 그 方法에도 두가지가 있다. 첫째의 方法은 水平的인 것으로서, 같은 水準에서의 範疇의 數를 늘려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全體的으로는 完結의이고 相互排他的이다. 가령 兩分法에서 三分法으로 發展시켜 나가는 것은 새로운 水準을 늘리지 않고서도 水平의 으로 具體化시켜 나가는 것이다. 範疇를 細分하는 두째 方法은 垂直的인 것으로 水準의 數를 늘려 나가는 것이다. 가령 論議對象을 男子와 女子라는 範疇로 分類하고 男子를 다시 既婚男子와 未婚男子로 나눈다면 하나의 階層이 追加된 셈이다. 이것은 論理的 作業이다.

다음 ॥ 分析的 概念表(analytical conceptual schemata)의 一種으로서의 分類體系는 分類用語의 必要 充分條件이 없거나 表示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適用될 수 있는 範圍로서의 論議의 對象을 排他的 完結的으로 區分시켜 주지 못한다. 萬一 이러한 分類體系가 그 論議對象을 實제로는 排他的 完結的으로 分類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分類는 論理的 作業의 結果가 아니라 對象이 가지고 있는 우연한 特징 때문인 것이다. 가령 不完全한 範疇들에 의하여 全對象이 排他的 完結的으로 分類되어 버렸더라도 그것은 있었을 법한 “범주”에 해당될만 한 어떤 事物이 우연히도 存在하지 않았었기 때문인 것이다.

以上 分類體系들은 經驗的 理論發展에 많은 示唆를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經驗的 理論의 一部로서 受容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디까지나 非理論的 構成이며, 그들 自體로서는 經驗的으로 檢證될 수 없게 되어 있다.

社會科學文獻에서 이러한 分類體系가 흔히 提示되는 것은 그것이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論理的인 關係판을 表示해주는 것에 不過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發展될 수 있는 理論의 윤곽을 提示하여 주기 때문에 쓸모가 큰 것이다.

(2) 類型(typologies)

社會科學에서 使用되고 있는 概念들을 體系的으로 整理하는 形式中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이 「類型」이라는 말이다. 그들의 大部分은 우리가 앞에서 본 여러가지 非理論的 構成에 屬하나, 또 다른 것들은 兩極概念을 使用分類하는 것, 좀 더 體系的으로 概念들을 分類하는 것 그리고 序列과 測定의 體系를 가진 것등 여러가지이다. 序列과 測定體系를 가진 類型은 때로는 經驗的으로 檢證할 수 있는 言明을 包含함으로써 거의 理論의 要件을 갖추는 것도 있다.

類型이라고 불리우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상 앞에서 보아온 定義表와 分析的 概念表에 屬하는 것 이므로 더 以上的 論議가 필요 없으나, 여기서 따로 言及해 두려는 것은 論議의 對象을 순서대로 配列하려는 意圖를 가진 類型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構成法이나 測定의 性格에 따로 概念을 分類한 일이 있는데 여기서 考察하려는 類型問題는 그러한 생각과 비슷한 것이다.

첫째 어떤 論議의 對象에 관하여 特定한 屬性을 基準으로 하여 그러한 屬性이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分類한 類型을 만들 수 있다.

두째로는 論議의 對象에 관하여, 特定한 分類基準에 따라 그 序列을 決定하여 주는 類型인데, ① 기에는 ① 對象을 先後, 強・弱, 大・小, 多・少로 배열하는 것과 ② 對象을 先後, 大小, 多少뿐만 아니라 同一한 것까지를 가려 내서 配列하는 것 등이 있다. 對象의 序列을 결정하는 길은 아주 有用한 것인데, 지금까지 이러한 類型이 잘 發達하지 못한 것은 序列關係에 관한 概念을 分明히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세계로 連續的 序列을 표시하는 類型보다 더 強力한 類型은 그 論議對象에 對하여 量의 인順序를 定하여 주는 類型이다. 即 計量的 測定을 可能케 하여 주는 類型이다. 이러한 類型이 만들어지려면, 사실상 어떤 數의 理論(number theory)의 公理들이 이런 類型에서 쓰이고 있는 言明의 模型으로서 使用되고 있어야 한다. 萬一 이와 같은 關係가 成立이 된다면 模型으로 쓰인 事의 理論이 가지고 있는 定理(theorems)들도 類型에 있어서 그에 相應하는 解석이 可能하다. 그렇게 되면 計量的 類型의 能力(power)은 數學模型에 壟臺를 둔 理論과 맞먹는 것이 되는 것이다.

IV. 分析水準과 概念의 問題

政治學의 分析水準(level of analysis)은 集合體를 다루고 있는 것인므로 巨視的인 것인가 또 사용되고 있는 概念들도 集團概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巨視的이니 微觀的이니 하는 것은 相對的인 것으로서, 政治學에서 分析하고 있는 分析對象 自體를 아주 巨視的인 것으로 ¼·ter 微觀的인 것에 이르기까지 各種水準으로 階層化시킬 수 있다고 말 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서 水準別로 使用된 概念이 巨視概念이냐 微視概念이냐를 따져볼 수도 있다.

이 問題에 관하여는 筆者가 이미 다른 機會에 「政治學의 理論單位와 方法論의 個人主義」라는 題目으로 좀 상세히 考察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再論을 避하기로 한다.⁽⁵⁰⁾

(50) 行政論誌(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0卷 1號 (1972), pp. 236-246.